

2. 일본의 복사기 및 세계의 프린터 시장 동향

디지털복합기시장 2004년까지 순조로운 성장 기대돼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서는 지난 3월 1일 정보단말기에 관한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프린터에 관해서는 2000년 실적에서 2004년까지 수요를 예측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편집자 주)

2000년 복사기의 동향

디지털MFP시대의 2000년 복사기 생산, 수출, 수입동향은 아날로그가 감소하고 디지털과 칼라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매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써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 디지털화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무기공업회의 자료통계에서도 복사기의 생산대수는 전년 97.4%로 전년 실적을 밑돌았으며 생산금액도 100.6%로 미묘한 증가에 그쳤다. 국내의 출하대수와 출하금액만은 전년비 100.4%와 100.0%로 건실하게 지키고 있다.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의 통계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대수는 전년비 137%, 수입금액도 132%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 공장 생산의 증강, 소비지의 직접수출에 따라 국내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대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2000년의 숫자는 '국내 생산대수도 수출대수도 늘어나지 않았다' '수입대수는 증가한다' '수입대수를 더한 국내출하는 미정중이거나 보합세이다' 라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것

과 함께 메이커에서도 판매점에서도 지금까지 맞지 않는 경영전략, 판매전략 변혁의 필요성을 압박시키고 있다.

메이커는 이미 해외 생산을 포함한 월드와이드 생산계획, 경영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어디서 만들 것인가는 문제가 아니고 부품의 공급, 인건비, 기술력, 수송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야에서 가장 싸고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느 곳인가라는 판단으로 생산지를 결정하는 시대라는 의미로 보면 일본도 후보지의 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수출이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들다는 공동화가 오더라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내 판매정책의 전환이나 메이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저 성장 시대' '네트워크시대' '솔루션시대'에 대응한 판매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판매점의 기득권이라고도 해야만 되는 각종 판매지원책의 개선에 직결되고 판매점의 판매의욕을 저하시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매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메이커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판매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메이커에 있어서도 판매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간

단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판매지원책을 중지하고 진지하게 판매에 대결할 수 있는 판매점, 성과를 올린 판매점에 중점을 두도록 판매지원책을 추진하는 메이커의 정책전환을 이해하더라도 자사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반대라는 '종합찬성 각론반대'라 판매점도 적지 않다. 많은 판매점의 경영자도 "메이커가 말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시대가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만큼이라도 PC가 보급된다면 네트워크에 대응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많은 경영자가 아직 "고도성장이라 말하지 않더라도 저 성장, 감속성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1965년 이후 판매점들은 업계 전체가 '높은 성장률'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전년비의 몇 퍼센트가 늘어났는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어느 만큼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런 고도성장의 시기에 시작하여 성장한 사람이 저 성장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인생관을 바꿀 리는 없을 것이다. 메이커나 메이커의 판매사와 같이 담당자, 경영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될 것이지만 판매점의 경영 교체는 그렇게 간단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전체적인 동향

프린터 세계시장은 2000년에도 순조롭게 판매대수가 늘어났으며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프린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만 지역별로 보면 일본이 전년에 이어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북미도 호황을 누렸으며, 경제위기를 탈피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래간만

에 성장률을 보였다. 또 잉크젯프린터에 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도 크게 성장했다.

방식별로 보면 성장이 이어진 잉크젯프린터와 MFP(디지털복합기)에 대해 LBP(페이지프린터)는 전체로서는 보합세이고 앞으로 하강 경향이 예상되는 흑백과 성장이 기대되는 칼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판매 금액은 판매대수의 성장에 비해 작아졌다. 이유는 가격 하락이나 저가격대에 의한 평균 판매 가격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보다 고부가가치의 기능을 겸비한 상품도 새롭게 시장에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 성능이 진보할 여지가 있는 제품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 호소력 있는 성능 향상이 어려운 제품 카테고리에서는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가 어렵고 가격 차별화에서도 따라가는 경향이 전년에 이어 2000년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의 실적 추정치

2000년 프린터의 세계시장은 99년 7천3백만대에서 8천7백만대로 전년에 비해 20% 신장했다. 금액으로는 9% 신장을 나타내 4조3천억엔(¥)을 나타냈다. 방식별로는 잉크젯프린터가 전년비 24% 증가해 6천4백만대가 판매됐으며, LBP는 대수로 2% 증가를 나타내어 1천170만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컬러 LBP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전년비 32%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71만대가 판매됐다. 컬러 LBP는 요사이 수년동안 본격적인 보급이 기대되어 왔으나 의연한 신장은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싼 신제품도 수입됐으나 컬러 용도나 컬러 코디네이터 방법 등 여러가지 용도 제안이 시장에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복합기 대수로는 전년비 19% 증가되어 750만대의 약한 수준에 그쳤다. 도트메트릭스 프린터 대수는 전년비 -5%로 되고 시장은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 판매 상황을 대수 베이스로 보면 경제 불황이 문제되고 있는 일본 시장이 30%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남미와 유럽도 잉크젯프린터만 보면 각각 28% 와 26% 증가했다. 또한 LBP 전체로는 남미와 유럽 모두 14%정도 성장하고 있으나 LBP는 각각 39%와 86%로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한편, 경제적인 호조의 덕택에 북미시장은 전년비 6포인트 늘어나 19%, 유럽시장은 전년비 14% 증가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정치와 경제적인 혼란도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이전보다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해 서인지 전년비 25%로 급성장하고 있다. 각각 지역에서 차지하는 판매측면 비율은 북미가 35% 증가, 서구가 31% 증가, 일본이 9% 증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MFP를 포함하지 않고 11% 증가, 기타 지역은 14%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 판매상황을 금액으로 보면, 북미와 서구 시장이 4%와 2%로 약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일본시장이 13%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기타지역은 20%를 웃돌고 있다. 다만 금액성장률은 대수성장률에 비해 일본이 가장 낮고 구미 북미 시장과 서구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기타 지역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까지의 예측

프린터 시장은 PC의 보급에 따라 신장이 계속되어 2004년에는 판매대수로 약 1억3천만대로 되고 대수베이스 신장률은 서서히 떨어져 작

년엔 두자리수 성장을 유지했으나 2003년에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홈(Home)시장에서의 프린터는 양극화와 다양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가격상품대와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양극화와 별도로 탈 FC화나 고성능화와는 다른 고기능화가 이미 정착한 홈시장을 향해 포토프린터등의 개인지향형 상품이나, 정보 가전기기의 대응하는 프린터등 가전제품분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잉크젯 프린트 영역에서도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트메트릭스는 잉크젯이나 LBP의 대체가 진행, 앞으로 수량은 감소할 것이지만 도트메트릭스만 대응할 수 있는 용도도 아직 남아있고 감소율은 생각했던 것보다 완만할 것이다. 잉크젯프린터는 앞으로도 순조롭게 판매대수가 늘어나 2004년에는 9,900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액베이스의 신장은 평균가격의 하락에 따라 2001년에는 거의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는 2004년 전망에 대해 1조엔(¥)대를 유지할 정도라고 계산된다. LBP의 신장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격 하락과 고속화가 추진, 훨씬 크게 신장할 것으로 생각되어 2004년에는 LBP 전체의 40%를 차지, 흑백LBP는 21ppm 이상의 신장이 현저하게 되고 고속화, 집약화가 점차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MFP는 앞으로 순조롭게 성장, 2004년에는 잉크젯트 방식으로 비해 700만대의 절반에 달할 것이며 전자사진식으로는 5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협회의 2000년 정보단말관련기기의 세계시장 예측

일본 시장 규모 및 2003년 수요 예측에서는 프린터 외에 디스플레이, 자기기억장치, 광디스

크장치, 이미지스캐너, OCR 등에 관한 예측도 했다. 정보단말용 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은 2000년에도 대수기준 순조롭게 성장했다.

CRT모니터의 세계시장은 PC나 워크스테이션의 호조에 의해 99년에 비해 13% 증가, 1억 1,255만대가 되었으며 국내시장은 저 가격 PC 수요 확대에 보다 싼 CRT가 예상외로 늘어 대수베이스로 전년비 74%증가해 519만대가 됐다. 액정모니터의 시장 확대에 따라 고전이 예측된 CRT 시장이지만 2003년까지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액정모니터의 세계시장은 연 중반부터 저 가격 대수로 전년비 44% 증가, 676만대라는 호조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국내 시장에서는 대수베이스로 전년비 18%증가, 281만대라는 고수준을 유지했다. 수요적으로는 CRT에 눌러 약

간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스캐너에서는 플랫 베드 스캐너가 이미지 스캐너 총 출하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비자를 향한 컴퓨터 및 컬러 잉크젯 프린터의 호조에 뒷받침이된 사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시장 전체로서는 연률 20% 정도 순조롭게 신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CR시장은 대수 금액측면 모두 14% 증가해 성장률은 보합세로, 99년은 감소 경향에 따른 문서철 이용의 OCR소프트웨어 타입이 다시 큰 신장을 보이는 등 대수베이스로는 착실히 늘어나고 있다. 문자인식의 소프트웨어화가 진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 그것이 OCR모듈로써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업무시스템과 합쳐지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앞으로 OCR시장은 더욱 큰 신장이 예상된다.

복사기 생산 현황

(단위 : 대/백만엔(¥))

연도	합계				정전간접식				디지털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1999년	1,685,432	95.6	559,946	100.5	473,886	42.2	106,204	37.8	1,081,211	184.3	337,155	146.8
2000년	1,693,191	100.5	541,084	97.3	362,336	76.5	70,486	66.4	1,186,427	109.7	361,649	107.3

연도	컬러				디아조 및 기타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1999년	124,380	291.3	111,898	267.8	5,955	59.9	689	66.5
2000년	139,732	112.3	108,281	96.8	4,696	78.9	668	97

복사기 기종별 생산 현황

(단위 : 대/백만엔(¥))

연도	저속기				중속기				고속기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1999년	158,958	57.5	19,180	48.4	228,065	35	39,520	34.5	86,863	44.2	47,504	37.5
2000년	160,113	100.7	18,606	97	149,572	65.6	23,827	60.3	52,651	60.6	28,053	59.1

복사기 수출 현황

(단위 : 대/백만엔(¥))

연도	합계				정전간접식				기타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1999년	1,310,219	105	367,022	101.3	1,313,616	104.8	363,515	101.2	26,633	116.2	3,507	118.7
2000년	935,954	69.8	333,402	90.8	910,692	69.3	328,676	90.4	25,262	94.9	4,726	134.8

복사기 수입 현황

(단위 : 대/백만엔(¥))

연도	합계				정전간접식				기타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1999년	231,177	95	17,632	65.6	222,065	92.6	17,117	68.9	9,412	238.5	515	25.4
2000년	318,067	137.1	23,440	132.9	308,713	139	22,845	133.5	9,354	99.4	595	115.5

2000년 세계의 방식별 프린터시장

(단위 : 천대/백만엔(¥))

	도트메트릭스		잉크젯		LBP		복합기(MFP)		합계	
	대수	전년비	대수	전년비	대수	전년비	대수	전년비	대수	전년비
대수	4,104	95%	63,690	124%	11,693	102%	7,474	119%	86,960	120%
대수구성비	5%		73%		13%		9%		100%	
금액	273,174	96%	1,527,458	106%	1,232,502	106%	1,227,589	119%	4,260,723	109%
금액구성비	6%		36%		29%		29%		100%	

2000년 세계의 방식별 지역별 프린터시장(대수)

(단위 : 대/백만엔(¥))

	북미	전년비	서구	전년비	일본	전년비	아시아 태평양	전년비	기타	전년비	합계	전년비
도트메트릭스	736	85%	701	85%	296	94%	1,537	108%	833	94%	4,104	95%
잉크젯	22,083	124%	20,085	119%	6,414	137%	6,745	129%	8,363	127%	63,690	124%
LBP	4,173	96%	4,135	97%	1,139	108%	1,430	124%	817	113%	11,693	102%
MFP	3,569	130%	1,747	116%	207	145%	-	-	1,952	104%	7,474	119%
합계	30,561	119%	26,668	114%	8,056	130%	9,712	125%	11,965	119%	86,960	119%

2000년 세계의 방식별 지역별 프린터시장(금액)

(단위 : 대/백만엔(¥))

	북미	전년비	서구	전년비	일본	전년비	아시아 태평양	전년비	기타	전년비	합계	전년비
도트 메트릭스	73,591	90%	46,682	88%	34,479	94%	76,578	108%	41,843	96%	273,174	96%
잉크젯	466,673	99%	499,957	104%	198,759	122%	157,907	122%	204,162	103%	1,527,458	106%
LBP	434,423	98%	379,650	104%	188,705	113%	147,815	130%	81,909	118%	1,232,502	106%
MFP	579,443	117%	242,950	96%	138,171	109%	-	-	267,024	165%	1,227,589	119%
합계	1,554,130	104%	1,169,240	102%	560,115	113%	382,300	122%	594,938	126%	4,260,723	109%

2004년까지의 세계 방식별 프린터시장 예측(대수)

(단위 : 천대(¥))

	1999년	전년비	2000년	전년비	2001년	전년비	2002년	전년비	2003년	전년비	2004년	전년비	CAGR (00~04)
도트메트 릭스	4,308	96%	4,104	95%	3,886	95%	3,660	94%	3,456	94%	3,277	95%	-5%
잉크젯	51,232	122%	63,690	124%	73,864	116%	83,736	113%	92,210	110%	99,026	107%	+12%
LBP	11,504	103%	11,693	102%	12,020	103%	12,412	103%	13,166	106%	13,748	104%	+4%
MFP	6,261	120%	7,474	119%	8,819	118%	10,378	118%	11,593	112%	12,758	110%	+14%
합계	73,304	117%	86,960	120%	98,589	113%	110,187	112%	120,425	109%	128,810	107%	+10%

2004년까지의 세계 방식별 프린터시장 예측(대수)

(단위 : 백만엔(¥))

	1999년	전년비	2000년	전년비	2001년	전년비	2002년	전년비	2003년	전년비	2004년	전년비	CAGR(00~04)
도트메트릭스	285,741	96%	273,174	96%	260,295	95%	244,599	94%	233,810	96%	220,026	94%	-5%
잉크젯	1,443,620	104%	1,527,458	106%	1,305,807	85%	1,118,047	91%	1,118,115	94%	1,054,866	94%	-9%
LBP	1,157,595	102%	1,232,502	106%	1,198,790	95%	1,098,723	89%	1,211,259	105%	1,279,460	97%	-4%
MFP	1,035,870	120%	1,227,589	119%	1,285,222	105%	1,398,181	109%	1,634,434	117%	1,722,481	105%	+9%
합계	3,922,826	106%	4,260,723	109%	4,050,114	94%	3,928,550	96%	4,197,618	105%	4,276,833	99%	-1%